



4면
'동아시아 평화 위한 유엔'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음 10월 15일) 제33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14개 시군, 스마트 제조혁신 '힘 합쳤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육성 협약식

삼성·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 CEO포럼도 참석

내년부터 연간 70곳
전북형 스마트공장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

삼성의 혁신기술 등 전주
도내 중기 제조혁신 지원



전북도와 도내 전 시군이 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과 함께 삼성의 혁신기술, 성공노하우 전수를 위해 지난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삼성전자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정철영 CEO포럼 대표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삼성전자 주은기 상생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맺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과 함께 삼성의 혁신기술, 성공노하우 등 글로벌 제조혁신 DNA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 포럼, (재)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삼성전자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정철영 CEO포럼 대표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 삼성전자 주은기 상생협력센터장도 참석해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전환 확산에 박수를 보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관이 힘을 모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전국 공모로 진행된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사업은 수혜 기업이 적고 제조업이 집중된 특정 시군에 국한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사업 효과가 입증된 대·중소 상생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확대·운영하고, 관(官)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해 혁신의 시너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전국의 대·중소 상생형 사업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성 44%, 납기준수를 14% 향상되었으며, 불량률은 53% 감소한 것

로 나타났다.
불량률 개선과 납기준수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매출이 향상되고, 고용 증가,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됐다.
도입기업이 효과를 직접 체감하며, 삼성의 대·중소 상생형 사업이 기업에 귀할 정도로 호평받는 사업이 됐다.
실제로 도입기업인 정철영 위저스(舊, 동성사) 회장은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의 현장방문 당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받은 성과를 도내 다른 기업들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며 삼성의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올 3월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확대와 함께 추가

적인 자체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전북형·삼성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전북도는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을 지난해 5,800만원에서 올해 7억9,600만원으로 대폭 올려, 기업부담은 낮추고(자부담 35%→20%) 사업대상을 확대(연간 15개→30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정부사업과 별개로 연간 7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14개 시군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프로젝트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삼성전자는 삼성의 혁신기술과 성공노하우를 제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국내·외 바이어 연계·활용과 아리랑 TV(105개국) 홍보영상 제작·송출, 삼성 직원물 입점 등 판로개척도 뒷받침한다.
전국최초 스마트공장 민간 확산 협의체인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은 사업 홍보와 도입기업의 사전준비 및 선배기업으로써 노하우 공유를, 시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제도 정비와 추진체계 수립 등을 마련한다.
이날 전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민간협의체인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이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시작된 혁신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전북도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ODA
(공적개발원조)
성장과 미래

국제협력진흥원, 30일
'전북 ODA 포럼' 개최
ODA사업 내용 공유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대식)은 오는 3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전라북도 ODA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전북의 다양한 ODA(공적개발원조) 참여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전라북도 ODA의 성장과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 문경연 교수(국제인문사회학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 '농업 ODA의 현황과 발전 방향'과 제2세션 '전북 ODA 참여 주체별 사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농촌진흥청, FAO(유엔식량농업기구)한국협력사무소,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농업 ODA와 식량안보'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흥원, 전주비전대, 삼동인터내셔널에서 추진한 'ODA 사업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진흥원, 전북도청, 전남농업기술원, KOICA와 함께 '전북 ODA의 발전을 위한 제언'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대식 원장은, "전북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ODA 생태계가 크지 않은 곳이지만,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전북의 ODA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럼은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로 운영되며, 사전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래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내 목재자원 활용 탄소중립 특화전략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전북, 목재문화지수 타 지역 대비 우수”
동-서부 산림순환체계 구축·목재 공공디자인 시범 추진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화모델로 도내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계하는 산림자원 선순환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수립을 통해 흡수원 확대와 목재산업 육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탄소중립센터 연구진의 조사 결과, 전북도는 그동안 흡수원 확대를

위해 조립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목재생산에서 목조건축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의 수준과 지역주민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목재문화지수'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의 사례분석 결과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 및 건축 대체재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목조건축'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민간영역 확장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대표 성공사례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서는 전북도의 경우 면적의 55%가 산림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을 연계한 탄소중립 특화전략으로 △동부권-서부권 산림순환체계 구축, △목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 △목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목재문화도시 이미지 선점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도내 목재자원의 공급 및 활용은 목재활용과 근거리 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뿐 아니라, 순환조립에 따른 추가 흡수원 확보, 목재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www.jcc.or.kr